

# kiri Weekly

2014.11.24 제309호

## 포커스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 글로벌 이슈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소통 현황과 시사점  
동남아 5개국 생명보험시장의 특성과 제언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 요약

-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상품, 서비스, 농업에 관한 협상은 타결된 가운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선 개방한 후 FTA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반면, 금융분야에 관한 한-중 FTA 협상은 1단계만을 마쳤으며, 상대방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각국에 진출하여 발생하는 영업시 애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및 무역수지 흑자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한-중 FTA 타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의료,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한-중 FTA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가 증진될 경우 양국 경제의 동조화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sup>1)</sup> 타결<sup>2)</sup>되었다고 공식 선언함.<sup>3)</sup>

-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

- 1)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에 따르면 양국의 협상이 '완전 타결'이 아니라 '실질적 타결'이라고 한 것은 협정문 문안 작성과 이에 필요한 자구 수정, 그리고 국내 법률적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임.
- 2) 한-중 FTA는 2005년 민관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후, 14차례 협상을 거쳐 30개월 만에 타결됨.
- 3)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됨.

-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양국 정부는 2014년 내 세부 작업<sup>4)</sup>을 마무리 하고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2015년 초 양국 정부 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할 계획임.
- **상품, 서비스, 농업에 관한 협상은 타결된 가운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지티브 방식<sup>5)</sup>으로 우선 개방한 후 FTA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sup>6)</sup>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중국내 법규 및 제도 정비는 상당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선 규정하고, 그 후 구체적인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협상을 종료기로 합의함.
- **반면, 금융분야에 관한 한-중 FTA 협상은 1단계만을 마쳤으며, 상대방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각국에 진출하여 발생하는 영업시 애로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 이번 FTA 협상에서 중국은 최초로 금융 별도의 장(chapter)을 수용하였으나<sup>7)</sup>, 금융시장 개방수준은 2001년 WTO 가입 당시에 허용한 수준에 그쳤음.
    - WTO 가입을 계기로 보험산업을 비롯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화 되었으나 아직도 자동차보험 영업 및 생명보험회사 설립 등 높은 진입 규제가 있음.<sup>8)</sup>
    - 현재 중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야에 제한적인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sup>9)</sup>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위안화 허브 구축 및 RQFII로 자본시장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4) 영문 작성 후 양국 언어로 협정문 작성하는 기술적인 사안

5) 개방할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임.

6)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중국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기로 합의함.

7) 그 동안 중국은 FTA 협상을 통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의도가 없어 최근까지 체결된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별도로 논의하거나 별도의 장으로 기재하지 않았음. 다만, 서비스교역에 관한 논의 속에 간략한 금융서비스 관련 원칙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는데 그쳤음.

8)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외자 생명보험회사 보유지분을 50%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외자 생명보험회사 전임직원에 대해 중국어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지점설치 요건이 있으며 외자계 보험중개채널에 대한 지분소유가 24.9%로 제한되어 있음.

9)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는 중국이 해외투자자들에게 한도 내에서 위안화로 본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금융 투명성을 제고하고<sup>10)</sup>,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를 확인을 위한 금융당국 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하였으며,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당국 간 별도의 협의 채널도 확보함.

- 양국은 금융분야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금융당국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사전에 이해당사자 의견 조회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수정된 규제안은 공표해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의함.
- 무분별한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을 막기 위해 ISD 제기 대상 안건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인지 여부를 조율하기로 함.
  -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ISD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를 영업상 규제로 인식하여 ISD 제기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양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중 FTA 협상 진행 상태를 점검하기로 함.
  - 그 동안 중국의 FTA 협상에서 금융분야는 서비스 부문 위원회의 일부인이었지만, 동 FTA 협상에서는 독립 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 한-중 FTA 타결로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모두 FTA를 타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및 무역수지 흑자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동 협상 발효 시 우리나라의 FTA 시장은 글로벌 GDP의 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모가 단기적으로는 612억~626억 달러(한-중 FTA 체결 전후대비 4.9~5.1%), 장기적으로는 836억~837억 달러(한-중 FTA 체결 전후대비 6.7~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그 중 금융서비스산업의 규모는 단기적으로는 45억~46억 달러(한-중 FTA 체결 전후대비 4.9~5.0%), 장기적으로는 63억 달러(한-중 FTA 체결 전후대비 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의료,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됨.

10) 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 한-중 FTA로 중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개방도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금융시장의 경우 한-중 FTA는 수출환보험 및 무역금융 등 기업을 뒷받침해주는 금융을 비롯하여 온라인금융결제시장, 기업금융시장,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역직구<sup>11)</sup>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로 인한 관세 철폐로 온라인금융결제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
  - 한-중 FTA로 중국기업 신용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투자금융업무가 확대되어 국내은행들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sup>12)</sup>가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투자은행(IB) 업무가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이미 중국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한-중 FTA는 관세 철폐에 따른 중국 수입물품 가격 하락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하락을 유도하여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중으로 중국 금리 인하도 예상되면서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입단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은행산업의 경우 한-중 FTA 체결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향후 위안화 결제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위안화를 취급하는 예금·대출·파생상품을 출시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 중임.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4년 11월 공동으로 위안화 정기예금을 6개월, 1년 만기로 출시함.
    - 4억 위안(외환 3억 위안, 하나 1억 위안) 한도로 특별 판매하며, 금리의 경우 6개월 만기는 연 3.0%, 1년 만기는 연 3.1%임.
  - 우리은행은 역외 위안화(CNH)를 기준금리로 삼은 입출식 통장, 자유적립식 및 회전식 정기예금 등의 위안화 예금 패키지를 출시함.
    - 예금 금리는 최장 3년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과 최장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회전식이 연 3.07%(우대금리 포함)임.

11) 국내 소비자의 인터넷 해외직구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국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임.

12) 현재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는 6.0%로 한국은행(2.0%)보다 4.0%p 높음.

- 신한은행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위안화 정기예금 상품 도입을 검토하며 2014년 내에 위안화 외화 대출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기업은행도 현재 1년 만기에 금리가 2.9%인 위안화 정기예금 상품을 개편해 출시할 예정임.
- 보험산업의 경우 동 협상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와 투자를 네거티브방식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중국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됨.
  - 중국은 서비스산업이 취약하여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도 중국 시장 진출 시 현지 기업과 무조건 50% 합작을 해야 하는 생명보험회사 지분규정을 완화하지 않았음.
  - 그러나 외국자본의 생명보험회사 지분 제한 규정은 2015년 중에 동 FTA와 상관없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sup>13)</sup>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을 현행 79개에서 35개로 줄이고 외자지분을 제한 완화 목록을 43개에서 11개로, 중국회사 지배주주 제한 업종을 44개에서 32개로 감소함.
    - 또한, 동 목록에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의견수렴이 끝나고 정식발표가 된다면 생명보험회사 지분규정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의 경우 한-중 FTA 타결로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금도 중국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독자 투자가 가능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손해보험업계는 동 FTA 타결로 중국내 금융규제 시스템의 투명성이 높아져 중국에 이미 진출한 손해보험회사들을 비롯하여 아직 진출하지 않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영업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함.
    - 국내 18개 손해보험회사 중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한 손해보험회사는 삼성화재<sup>14)</sup>를 비롯하여 현대해상<sup>15)</sup>, LIG손보<sup>16)</sup>, 동부화재<sup>17)</sup> 등 총 4개사로, 동부화재는 중국 보험회사에 지분투자

13) 3년마다 수정안이 발표되고 있는데 동 수정안은 외상투자 관련 제한목록 감소 및 허용 분야 확대 등 여러 면에서 과거 수정안 대비 변화가 큼.

14) 삼성화재는 삼성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라는 법인이 중국 보험시장에서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 최초로 중국에서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한 삼성화재는 2013년 중국시장에서 1,091억 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15) 현대해상은 중국에서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대해상의 중국 법인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는 2013년 485억 6,000만 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16) LIG손해보험은 LIG재산보험유한공사라는 중국법인이 일반보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2013년 원수보험료는

를, 그 외 나머지 3개 손해보험회사는 현지법인을 설립함.

-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투자액 증가에 따른 상품교역 관련과 공장재산보험 등의 신규 수요 증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보험회사에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sup>18)</sup>
-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가 증진될 경우 양국 경제의 동조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 전이 및 확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kiri**

---

174억 6,000만 원을 기록함.

17) 동부화재의 경우 중국 현지 보험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중국보험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안청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의 지분 15.0%를 보유한 3대 주주임.

18) 보험신보(2014. 11).